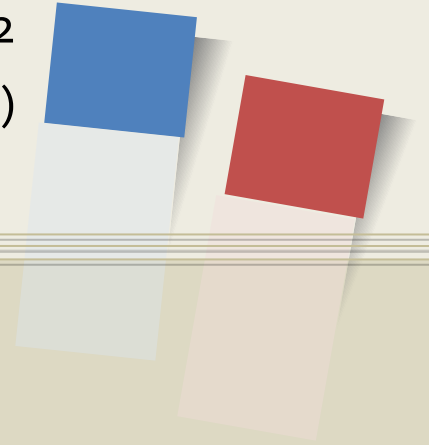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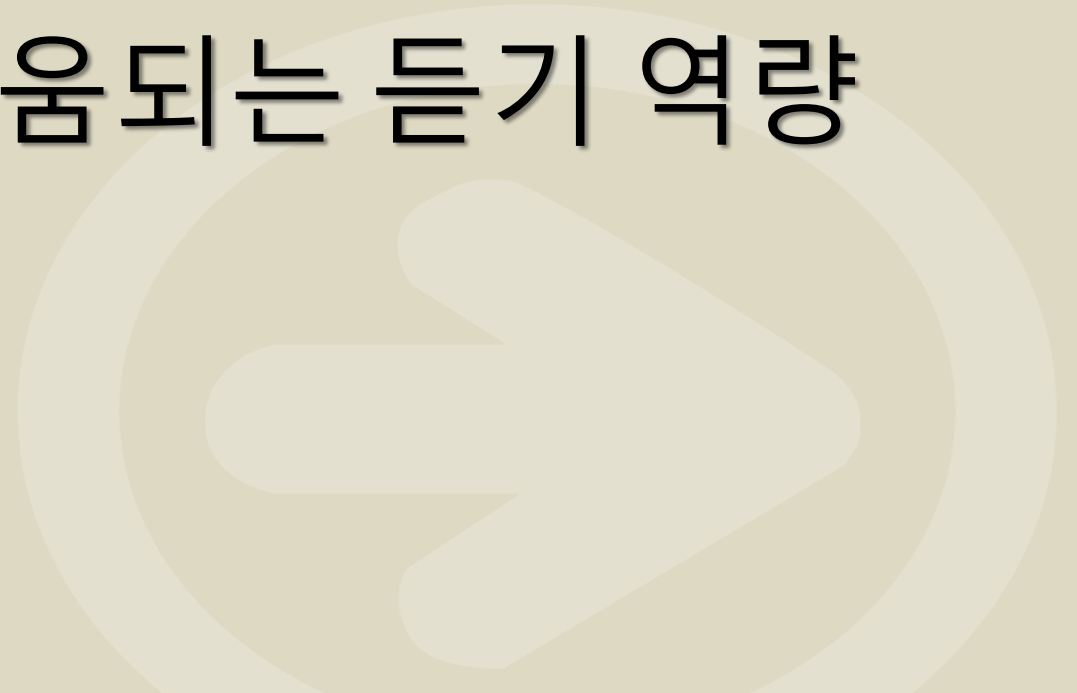


2023.11. 22
8주차 글말특강 - 한희정(교양대학 교수)



문해력과 말하기에 도움되는 듣기 역량





읽기/ 쓰기



□ 읽기와 쓰기

- 혼자 하는 일, 고독력(孤獨力)이 필요한 일
- 직접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지는 않은 일

□ 말하기와 듣기

- 혼자 할 수 없는 일(듣기의 경우, 사이버상에서는 가능함)
-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타인이라는 물리적 존재가 수반됨
-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절하기가 필요함
-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.



문해력 저하 논란



[Redacted] - Aug 20

[Redacted] 작가 사인회 예약 관련 안내]

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. 예약 과정 중 불편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**심심한 사과** 말씀 드립니다.

사인회 예약이 확정되신 분들께는 다음 주 초 중에 사인회 순번 및 도착 시 **우**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

심심한 사과, 심심한 위로 뜻 바로 알기

방문 >



- '심심(甚深)한 사과'
- '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'
- 심심하다 – 할 일이 없고 지루하다



문해력이란 무엇인가?



- '리터러시(literacy)'의 번역어로서 '글을 풀어내는 힘'
-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
- 리터러시는 문해력보다 더 그 의미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
- "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"(UNESCO)



- ❑ 문해력과 그 경험을 설명하려면 다양한 이론과 학문을 검토할 필요 있음
- ❑ 수많은 이들이 학교, 직장, 일상의 모든 맥락에서 읽고 쓰고 소통하는 등 문해력의 복합적이고 다층적 맥락을 고려하는데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연관되기 때문.
- ❑ 그 중에서도 특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**기초 문해력**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꼭 갖춰야 할 배움의 도구.



확장된 문해력

- 미디어 리터러시, 비즈니스 리터러시, 디지털 리터러시, 데이터 리터러시, 역사 리터러시, 감정 리터러시
- 유네스코는 2003년부터 인간 존엄과 인권의 문제로서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리터러시 증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리터러시에 관한 의제를 2년 주기로 채택해왔음.



- 2003-2004년에는 '문해와 성',
- 2005-2006년, '문해와 지속가능 발전',
- 2007-2008년, '문해와 건강', 2009-2010년, '문해와 권한 부여',
2011-2012년, '문해와 평화', 2013-2014년, '21세기를 위한 문해',
2015-2016년, '문해와 지속가능한 사회',
- 2017년, '디지털 시대의 문해', 2018년, '문해와 기술 개발'
-



AI시대 청소년 리터러시 역량



- 데이터와 정보의 이해,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해,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, 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
- 문제해결능력과 윤리 등 비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고
- 특히 질문할 수 있는 능력,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, 청소년에게 필요한 중요한 역량으로 손꼽음 (이창호, 2023).



역량이란 무엇인가?



- 역량은 “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? 임 ‘인간이 누구인가’를 묻는 철학적 질문은 아님.

그러나 이 AI시대 청소년 리터러시 역량은 아니고는 답할 수 없음.



마셜 누스바움(M. Nusbaum)의 역량

- capability는 현실화되지 않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한 반면에,
- ability는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의미
- competence는 잠재력을 의미한다.





누스바움 (M. Nussbaum) 의 10대 핵심역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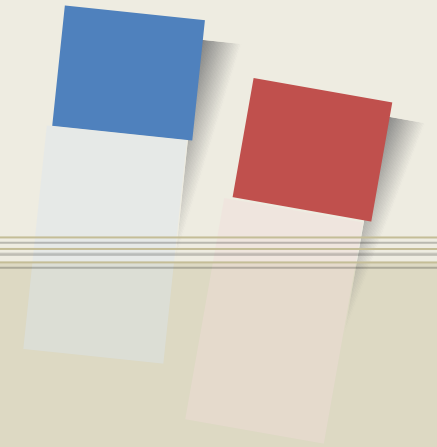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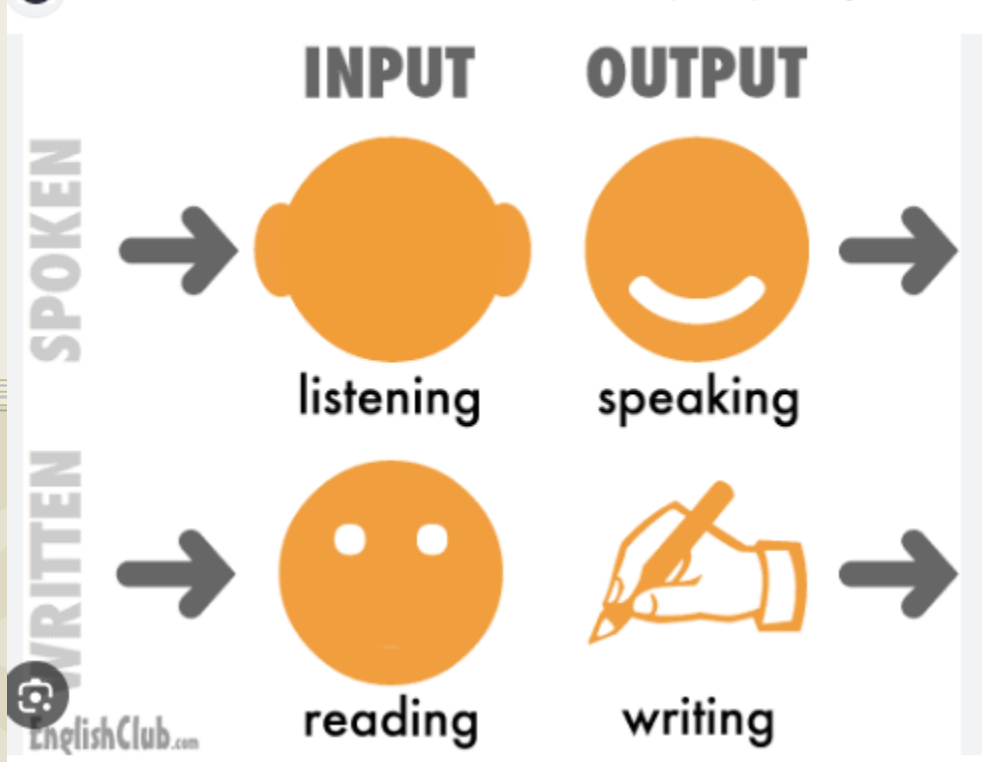
- ❑ 누스바움은 역량들(capabilities)이라는 복수형 사용. 역량들 간의 질적 차이를 표현해내기 위해서임.
- ❑ "1. 생명 life: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.
- ❑ 2. 신체건강 bodily health: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
- ❑ 3. 신체보전 bodily integrity: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
- ❑ 4. 감각, 상상, 사고 senses, imagination, and thought : 감각 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,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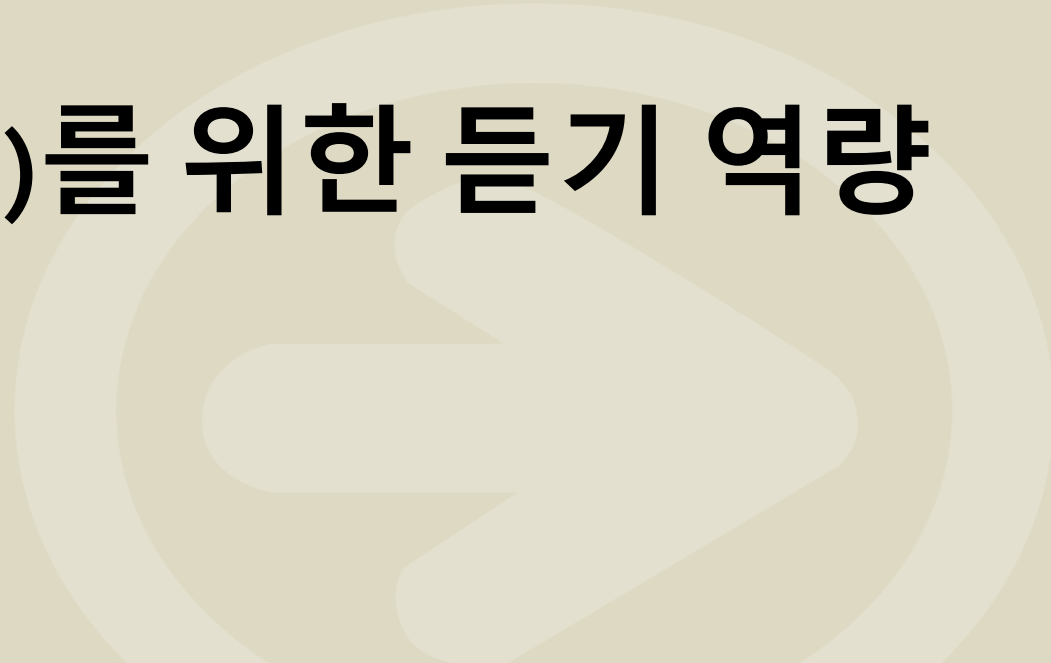
- ❑ 5. 감정 emotions: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
- ❑ 6.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: 선(善)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(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)
- ❑ 7. 관계 affiliation: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
- ❑ (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. 인종, 성별, 성적 지향, 민족적 배경, 사회계급, 종교,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)



- 8.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: 동식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
- 9. 놀이 play: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
- 10. 환경통제 control over one's environment: 정치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(물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)



ooooLiteracy (oooo역량)를 위한 듣기 역량





- 언어적 존재, 인간은 본래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함.
-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듣기가 먼저!
-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 하는 사람보다 앞서는 것도 그 때문.

- 현대의 인간관계, 언제 어디서든지 눈에 안 보이게,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리드함
- 유튜브 등 인터넷의 많은 자료, 듣기를 잘하면 내 것으로 소화 가능(좋은 자료를 구별할 지혜 필요)



듣기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!



Speech is silver,
but silence is golden

말하는 사람은
씨를 뿌리고,
침묵하는 사람은
거두어 들인다.

- J.레이 -

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귀를 주되

그대의 목소리는 극소수의
사람에게만 주어라 [셰익스피어]



실생활 의사소통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.
(듣기 45%, 말하기 30%, 읽기 16%, 쓰기 9%)

듣기를 위한 말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없다. 따라서 수업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아래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여 듣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.

듣기는 말하기, 읽기, 쓰기 등 타 언어 영역으로 전이 효과가 크다.

당신이 말을 할 때는
알고 있는 지식을
되풀이하는 것입니다.
하지만 당신이 들을 때는
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.

- 달라이 라마





듣기 목적에 따른 전략



듣기영역	듣기 목적	듣기 전략
정보 확인하며 듣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말을 듣고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메모하며 듣기2. 내용회상하며 듣기3. 빈칸 채우며 듣기4. 집중하며 듣기
내용 이해하며 듣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야기를 듣고 중심 내용과 내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.•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.• 이야기를 듣고 이어질 내용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배경지식과 연결하며 듣기2. 순서 바로 잡으며 듣기3. 내용들 간의 관계 파악하며 듣기4. 요약하며 듣기5. 내용 조직하며 듣기6. 정의, 비교, 대조하며 듣기7. 빠진 내용 추측하며 듣기8. 내용 추론하며 듣기
비판적으로 듣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야기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.• 들은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정보의 적합성과 타당성 파악하며 듣기2. 사실과 의견, 추론 구분하며 듣기3. 편견과 과대포장 파악하며 듣기4. 해결방안 찾아내며 듣기
감상하며 듣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야기 자체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다.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감명 깊거나 유익한 점 찾아내며 듣기2. 청각적 피로를 덜어주며 듣기



문해력 향상을 위한 듣기



- ❑ 듣기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
- ❑ 한 사람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데는 50분-1시간이 한계
- ❑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음. 더군다나 집중해서 듣는 것은 매우 지치는 일
- ❑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음
- ❑ 상대의 이야기 내용뿐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에도 함께 리듬을 맞춰며 들어주는 것이 듣기의 고수 되는 길



좋은 대화를 위한 듣기

- ❑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말하려는 욕구를 다스려야 함
- ❑ 상대의 말에 말과 몸짓으로 긍정적 사인을 보내야(맞장구는 상대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)
- ❑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잊어야. 듣는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갖고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에 실패하기 쉬움
- ❑ 조언은 불필요. 조언을 하는 순간, 듣는 모드는 끝.
- ❑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자녀의 존경을 받음



각종 강의, 유튜브, 대담, 뉴스....듣기



- ❑ 듣기 기술은 인간관계에도 중요하지만
- ❑ 듣는 강의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역량 (oooo 리터러시)를 키워낼 수 있음
- ❑ 더불어 기초 문해력도 키울 수 있음



참고문헌



- 김연미 (2019).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. 법학연구 통권 제61집, 73-107.
- 히카시야마 히로히사 (2001). <듣기의 달인이 되는 법칙>(이규조 옮김)